

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March 25

• 마태복음 5:10-12; 로마서 8:35-36

삶에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.

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(마 13:44). 세상은 드러난 ‘밭의 가치’만 생각하지만,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감춰진 ‘보화’를 봅니다. 예수님은 박해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. 의를 위하여,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모두 고난이었습니다.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체가 순교를 결단하는 것과 마찬 가지였습니다.

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나라와 반드시 충돌합니다.

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때, 고난이 없을 리 없습니다.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일에 고통이 없을 리 없습니다. 그러니 박해는 교회가 교회답게,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음을 가늠하게 하는 표지입니다.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(요 18:36). 박해를 피하는 게 복이지 당하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? 그러나 진정한 복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.

“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”(시 63:3).

초대교회가 주일예배 때 함께 낭송했던 시편입니다. 그들은 박해와 순교의 위협 중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찬양했습니다.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,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들릴 때,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송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기쁨입니다.

나는 진정한 복을
깨달았습니까?

- ① 밭의 가치만 봅니까, 그 속에 감춰진 보화를 봅니까?
- ②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?